

#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그릿에 의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슬아<sup>1)</sup> 고사랑<sup>2)</sup>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그릿(Grit)의 조절효과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 자료 중 총 1,39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높을수록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그릿은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높을지라도 아동의 그릿 수준에 따라, 아동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미디어 의존에 대한 개입에서 그릿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조사,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그릿, 조절효과

## I. 서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3세~69세 사이의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4.2%에 달하여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디어 사용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유·아동의 위험군은 2019년 21.9%, 2020년 27.3%, 2021년 28.4%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

\* 본 논문은 제1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2022. 9. 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초빙조교수

2)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특히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는 등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후로도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 과의존<sup>3)</sup>은 한 개인에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공영숙·임지영, 2021). 미디어 과의존의 대표적인 문제인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사람들은 하루 중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요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Elhai, Dvorak, Levine et al., 2017),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불안, 초조 등의 부정정서를 경험하며, 사용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여 학업적, 직업적, 사회적 장면을 포괄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김형지·김정환·정세훈, 2012; 노지운·최진영, 2019; 허무녕·김춘경, 2021).

이러한 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두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유·아동에게 나타나는 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영역에서의 발달이 대부분 완성되어 있는 성인과 달리, 유·아동기의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발달 단계상으로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고차원적 인지기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통해 발달을 촉진해야 할 시기에 충분한 발달 자극을 받지 못하기 쉬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동의 발달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Kim, 2022). 결국 미디어의 과다 사용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저해하여 아동의 삶에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백혜원·신윤미·신경미, 2014; 송민호·진범섭, 2014). 실제로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었으며(Elhai, Dvorak, Levine et al., 2017; Panova & Lleras, 2016),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이 낮았다(금희조, 2011; 남문희·김혜옥·권영채, 2013; 장덕희·김정은, 2018).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으며(김보연·서경현, 2012),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나타냈다(백혜원·신윤미·신경미, 2014).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학업적, 사회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바,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았으며(김여란, 2013; 노지운·최진영, 2019; 문종미·최진오, 2015), 부모, 교사, 또래를

3)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미디어 중독, 미디어 과의존, 미디어 과사용 등의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중독이라는 용어가 DSM이나 ICD와 같은 정신장애 진단편람의 공식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을 감안하여, 미디어 과의존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포함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김보경·백용매·허창구, 2016; 김현정, 2016; 이정숙·명신영, 2007; Lepp, Li, & Barkley, 2016). 이처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는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과의존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환경적 요인(가족관계, 양육행동, 또래관계, 학교적응, 문화적 요인 등), 성격적 요인(기질, 자존감, 자기통제력) 등을 주요 영향 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Fischer-Grote, Kothgassner, & Felnhofer, 2019; Kim, 2022).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과의존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그릿(Grit)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여, 그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모의 미디어 과의존은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오세현·김지윤, 2021; 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Matthews, Thomas, Stevic et al., 2021). 모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 간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먼저 부모와 아동은 서로 유전적 특성을 공유하므로, 이러한 요인이 부모 및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주요한 기질적 취약성으로 제기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성격 특질로 검증되어 온 바(Takahashi, Yamagata, Kijima et al., 2007), 미디어 과의존에 취약한 유전적 요인이 부모 및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행동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은 미디어 사용 행동을 포함한 부모의 제반 행동을 관찰하며 모델링하므로, 부모의 미디어 사용 행동과 아동의 미디어 사용 행동 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날 수 있다(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특히 모는 아동의 일차적 애착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바, 아동이 자녀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델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모의 미디어 의존 경향이 높을 경우 자녀 역시 미디어 기기에 친숙해지고 미디어 의존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는 모의 미디어 사용 태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모가 미디어 의존 경향이 높다면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보다 허용적, 방임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로 미디어를 과다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방임하는 경향이 있으며(최명옥·구자경, 2019), 대규모 인구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도 만 3세~9세 자녀를 둔 학부모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부모는 일반 사용자군인 부모에 비해, 부모 편이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방임하는 행동을 더 높게 보고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또한 미디어 사용에 허용적인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양육자의 허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경향은 높아졌다(고은혜·배상률, 2016; 김종민·최은아, 2019; 김환남·이선애·이은경 외, 2014; Cingel & Krcmar, 2013; 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이처럼 모의 미디어 과의존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의 미디어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정신병리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특히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해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병리로 발전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문제 행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Grit)을 보호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 et al., 2007).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이 원하는 목표나 관심을 장기간 유지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하는 끈기를 지니고 있다(Duckworth, Peterson, Matthew et al., 2007). 그릿은 중독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낮은 수준의 그릿은 높은 수준의 약물남용과 관련되었으며(Guerrero, Dudovitz, Chung et al., 2016),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측하였다(Borzikowsky & Bernhardt, 2018). 반면, 높은 수준의 그릿은 부적응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덜 하도록 도우므로(Guerrero, Dudovitz, Chung et al., 2016), 그릿이 높은 아동들은 휴대폰 의존도가 더 낮은 경향이 보고된다(조제성, 2020). 그릿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관리하는 대처 능력이 뛰어나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 보상적인 스마트폰 과사용 문제를 나타내지 않으며(Kardefelt-Winther, 2014), 주의집중력이 높아 스마트폰에 의해 쉽게 주의분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Kalia, Thomas, Osowski et al., 2018). 이처럼 최근 그릿은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Khoo & Yang, 2022; Kim, Kwak, & Kim, 202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 개인이 지닌 그릿 경향은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아동의 그릿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아동 스스로가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는 미디어 사용을 덜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그릿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그릇은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즉, 모의 미디어 의존 수준이 높은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아동의 그릇 수준이 높다면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덜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모의 미디어 과의존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아동의 그릇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을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3: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릇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즉,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그릇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제13차년도(2020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2,150명의 신생아를 모집하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이 참여자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년 조사가 실시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조사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총1,39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707명(50.8%), 여아가 686명(49.2%)이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모의 평균 연령은 43세, 부의 평균 연령은 45세이었다.

### 2. 측정도구

#### 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은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의 보호자용 질문지에 포함된 부모진단용 미디어기기 중독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미디어기기(PC, 스마트폰)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을 측정한다. 일상생활장애 요인에는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내성 요인에는 '점점 더 많은 시

간 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금단 요인에는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어머니의 미디어 과의존

어머니의 미디어 과의존은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의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 포함된 미디어 중독 척도로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내성, 금단을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생활장애 요인에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내성 요인에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금단 요인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과의존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다. 아동의 그릿

아동의 그릿은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의 아동용 질문지에 포함된 Grit 척도로 측정하였다. 질문지에서 사용된 Grit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역문항)). 본 연구에서는 Grit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라. 통제 변수

추가적으로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서,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감독, 아동의 컴퓨터 활용능력,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삶의 만족도 변수는 통제 변수로 회귀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수는 모두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지난 1년 동안의 월평균 가구소득(1문항), 부모감독(5문항)은 보호자용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컴퓨터 활용능력(8문항),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6문항), 아동의 자아존중감(5문항), 아동의

삶의 만족도(3문항)는 아동용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1(Hayes, 2012)을 활용하였다. Hays(2012)가 개발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은 단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때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변인별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 양상을 확인하고자 조절변인의 평균 및  $\pm 1SD$  지점에서 집단을 구분하여 Aiken과 West(1991)의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우선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평균은 27.97( $SD=6.84$ ), 모의 미디어 과의존의 평균은 25.98( $SD=7.01$ )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그릿 평균값의 경우 평균 3.08( $SD=.76$ )이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된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571.8만원( $SD=405.1$ 만원)이었고, 부모감독은 평균 18.48( $SD=2.04$ )이었다. 아동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평균 23.19( $SD=9.32$ ),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평균 2.95( $SD=.73$ ), 자아존중감은 평균 3.23( $SD=.82$ ), 삶의 만족도는 3.04( $SD=.74$ )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구에 사용된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변인들인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그릿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높을수록 아동의 미디어 의존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22, p < .001$ ). 한편, 아동의 그릿 수준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r = -.04, p = ns$ ),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는 약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 $r = .12, p <$

.00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각각 <표1>과 <표2>를 통해 정리하였다.

아울러 통제 변수로 고려한 변인들이 주요 변인과 맺는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나 규제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 = -.24, p < .001$ ). 아동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이 컴퓨터 활용에 친숙하고 능숙할수록 미디어 의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r = .11, p < .001$ ). 그러나 월 평균 가구소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평균	분산	최댓값	최솟값
1. 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	27.97	6.8	54	15
2. 모의 미디어 의존	25.98	7.0	15	48
3. 아동의 그릿	3.08	0.8	0	5
4. 월평균 가구소득(백만원)	571.8	405.1	100	9000
5. 부모 감독	18.48	2.0	8	32
6. 아동의 컴퓨터 활용능력	23.19	9.3	0	40
7.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2.95	0.7	0	4
8. 아동의 자아존중감	3.23	0.8	0	4
9. 아동의 삶의 만족도	3.04	0.7	0	4

<표 2>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결과

$N=1,393$

	1	2	3	4	5	6	7	8	9
1	-								
2	.22***	-							
3	-.04	.12***	-						
4	.05	.00	.00	-					
5	-.24***	-.11***	-.02	-.00	-				
6	.11***	.12***	.43***	.01	.00	-			
7	.01	.15***	.65***	.00	-.01	.40***	-		
8	.02	.13***	.66***	.02	-.01	.43***	.74***	-	
9	.01	.15***	.64***	.02	-.03	.33***	.74***	.78***	-

\*\*\*  $p < .001$



## 2.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조절효과 검증

주요 변인들 간의 회귀 분석을 통해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그릿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도 검증하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의 모형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193, p < .001$ ). 즉, 모가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도는 통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로도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 가설 1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그릿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결과, <표 3>의 모형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동의 그릿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114, p < .01$ ). 따라서 모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 통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의 그릿은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여, 가설 2가 검증되었다.

<표 3> 모의 미디어 의존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 간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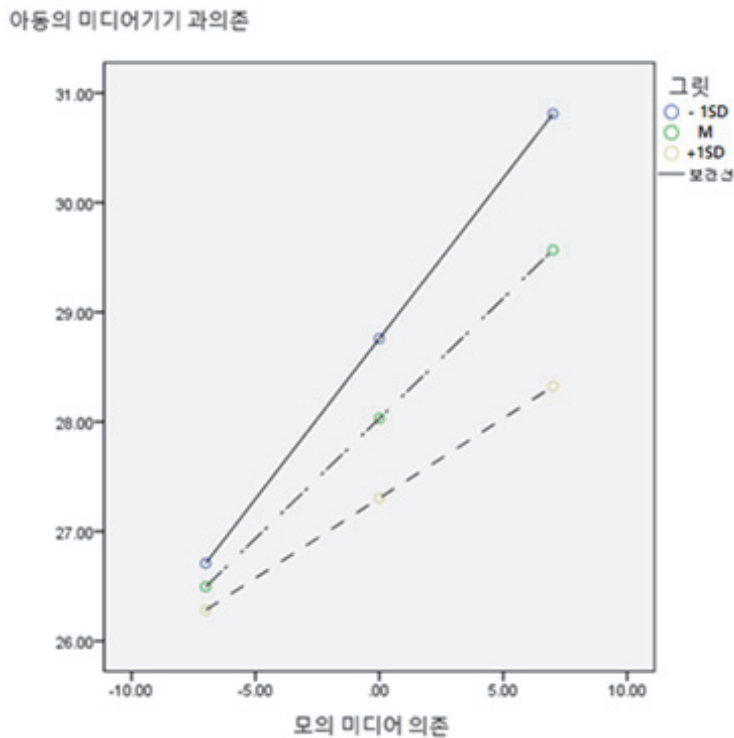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	B
모의 미디어 의존(A)	.193***	.193***	.184***
아동의 그릿(B)		-1.114**	-1.239***
A × B			-.085**
성별	1.897***	1.909***	1.960***
소득수준	.000	.000	.000
통제 변인			
부모 감독	-.727***	-.729***	-.724***
컴퓨터 사용 능력	.081***	.094***	.088***
전반적 행복감	-.812	-.391	-.479
자아존중감	-.174	.091	-.005
삶의 만족도	.069	.212	.102
상수항	41.156***	38.339***	39.293***
Adj. R <sup>2</sup>	.129	.136	.139

B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 $p < .01$ , \*\*\* $p < .001$

모형 3의 R<sup>2</sup> 변화량 : .004 ( $p < .01$ )

마지막으로 아동의 그림이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사이에서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의 모형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그림의 상호작용 항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beta = -0.085, p < .01$ ). 또한, 조절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른  $R^2$  변화량은 .004( $p < .01$ )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림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그림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에 따라 상, 중, 하 집단으로 구분한 후,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점수 수준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 효과의 사후 검증을 위해 단순 회귀선 기술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그림의 조절효과

〈표 4〉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수준에 따른 단순 기울기 검증

변수	Effect	S.E,	t	95% CI	
				LL	UL
낮음(-1SD)	.2927	.0336	8.7156***	.2269	.3586
평균	.2192	.0256	8.5572***	.1690	.2695
높음(+1SD)	.1457	.0363	4.0189**	.0746	.2168

\*\* $p < .01$ , \*\*\* $p < .001$

그릿의 수준에 따라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그릿의 수준이 평균보다 -1SD 낮을 때( $B = .2927$ ,  $t = 8.72$ ,  $p < .001$ ), 평균 수준일 때( $B = .2192$ ,  $t = 8.56$ ,  $p < .001$ ), 평균보다 +1SD 높을 때( $B = .1457$ ,  $t = 4.02$ ,  $p < .001$ ),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그릿(Grit)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특히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그릿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제13차년도(2020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그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우선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해 모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가설 1이 검증되었다. 이는 모가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할수록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이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정적 관계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Matthews, Thomas, Stevic et al., 2021). 발달 단계상 자신의 충동이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고차원적 인지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인 아동의 경우, 미디어 과의존이 충분한 발달의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은 부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정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 및 개입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그릿은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검증되었다. 그릿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혹이나 장애물이 발생하더라도 목표를 향한 초점을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도록 돕는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et al., 2007). 미디어 과의존은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충동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동반되는 것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목표를 향한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 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정도로 의존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검증한 것이며, 그릿이 온라인 게임 중독, 휴대폰 의존도와 부적 관계를 맺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조제성, 2020; Borzиковsky & Berngardt, 2018).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미디어 과의존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의 관계에서 아동의 그릿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즉,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 개인의 그릿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릿 수준이 낮은 경우 모의 미디어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도 크게 증가하지만, 그릿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모의 미디어 의존이 높은 환경적 취약성을 지닌 아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의 그릿 수준이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과 같은 문제로 발전하는 데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릿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그릿은 훈련에 의해 후천적으로 육성될 수 있어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지도 외에 학교 교육 및 교사의 지도로도 개입이 가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강점이 있다(Borzиковsky & Bernhardt, 2018). 부모가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고 미디어 사용에 과도하게 허용적인 특성이 나타나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최명옥·구자경, 2019), 가정 내 개입만으로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릿은 가정 외에서의 개입으로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변인이므로,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본 연구는 전국에서 표집된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그릿의 영향을 검증한 바, 개별 연구자가 진행한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높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그릇은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확인된 바, 추후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을 수립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를 비롯한 가족 전체의 미디어 의존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아동을 지도할 수 있는 가족들이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가정 안에서의 개입만으로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모의 미디어 과의존 또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노력 외에 학교, 상담센터 등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지지체계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외부 지지체계의 도움을 통해서 모의 미디어 과의존을 치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의 그릇을 향상시키는 개입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개입(아동의 미디어기기 의존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 그릇이라는 새로운 긍정적인 자원을 증진시키려는 개입이 함께 동반된다면, 치료적 개입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보다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형성하며 치료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은 미디어 의존 문제가 심각한 임상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임상군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군, 잠재위험군, 고위험군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하는 다수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척도의 일부 문항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참여자가 지닌 심리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변인들 외에 선행 연구에서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중요한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모의 미디어 과의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변인은 13차년도(2020년)에 처음으로 포함된 척도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바, 각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이후 축적되는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패널 자료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미디어 과의존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이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개입 외에 부모 교육 및 개입도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의 중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김형지·정세훈, 2015; 박혜선·김형모, 2016; 장미경, 2010; 장재홍, 2004), 부모가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해 갖는 태도와 행동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미디어 사용의 중요성과 관련한 적절한 교육 및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는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개입에서도 부모교육의 요소는 중요하게 포함되고 있으나, 대부분 개입의 주요 초점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부모 교육에서 자녀의 미디어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부모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방식을 다루는 요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부모의 미디어 사용 습관이나 태도를 점검하지는 않는다(이숙정·전소현, 2010; 장미경, 201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아동의 문제 행동에만 개입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부모 자신의 미디어 사용 행동이나 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한 개입을 마련할 때에는 부모와 아동 모두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는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있는 취약한 환경적 변인이 있더라도 후천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아동의 그릇을 향상시킨다면,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미디어 과의존 문제의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인 그릇을 육성하는 개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릇은 가정 내의 지도감독이나 교육 외에도 학교나 교사와 같은 외부적 지지 자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평가 및 개입이 실시된다면 아동의 미디어 의존 행동을 조기에 탐지하고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따라서 이러한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추후 대규모 선별검사를 시행할 때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 증상 외에도 그릇과 같은 긍정적 자원을 평가한다면, 추후 아동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을 확인하여 활용하는 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릇을 육성하는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 그릿은 단기적인 개입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향상되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의 개입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Santos, Petroska-Beska, Carneiro et al., 2022; Schunk, Berger, Hermes et al., 2022). 따라서 그릿을 향상시키는 단기 개입을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시킨다면, 취약성을 지닌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고은혜·배상률(2016).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6), 451-472.
- 공영숙·임지영(202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그릿, 집행기능 곤란 및 미디어기기 과의존 간의 구조적 관계.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3), 387-400.
-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 및 추구관리 매뉴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금희조(2011).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5), 7-48.
- 김보경·백용매·허창구(2016). 애착과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483-502.
- 김보연·서경현(2012). 고등학생의 폰 중독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반응: 수면부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85-398.
- 김여란(2013).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민·최은아(2019).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포래애착,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8(4), 197-225.
- 김현정(2016). 남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 및 의사소통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지·정세훈(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모중재, 학교교육 및 심리적 반발심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1), 87-120.
- 김형지·김정환·정세훈(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 김환남·이선애·이은경·천재현·김성희(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 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남문희·김혜옥·권영채(2013). 건강행태, 스마트폰중독 및 자살생각지수가 주관적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557-569.
- 노지운·최진영(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행복감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부모, 교사, 또래) 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1265-1286.
- 문종미·최진오(2015). 스마트폰중독 경향성이 초등학생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ADHD 성향성의 매개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63-292.
- 박혜선·김형모(2016).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498-512.
- 백혜원·신윤미·신경미(2014).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정서 및 행동의 문제, 신경정신의학, 53(5), 320-326.
- 송민호·진범섭(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심리적 요인의 이해와 중독 예방을 위한 설득 메시지 전략의 모색. 언론과학연구, 14(3), 135-179.
- 오세현·김지운(2021). 부모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9), 201-229.
- 이숙정·전소현(2010).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6), 289-322.
- 이정숙·명신영(2007).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2, 1-25.
- 장덕희·김정은(2018).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9(1), 1-10.
- 장미경(2010).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및 우울과 부모가 지각한 청소년 자녀의 게임 중독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47-66.
- 장미경(2011).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277-297.
- 장재홍(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조제성(2020). 부모의 양육태도, 그릿점수, 휴대폰 의존,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0(3), 83-103.
- 최명옥·구자경(2019). 스마트미디어를 과다사용하는 기혼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4(1), 1-18.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인터넷중독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허무녕·김춘경(2021).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시간관의



다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243-26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Borzikowsky, C., & Bernhardt, F. (2018). Lost in virtual gaming worlds: Grit and its prognostic value for online game addiction. *Th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s, 27*(5), 433-438.
- Cingel, D. P., & Krcmar, M. (2013). Predicting media use in very young children: The role of demographics and parent attitudes. *Communication Studies, 64*(4), 374-394.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 Elhai, J. D., Dvorak, R. D., Levine, J. C., & Hall, B. J. (2017). Problematic smartphone use: A conceptual overview and systematic review of relations with anxiety and depressio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7*, 251-259.
- Fischer-Grote, L., Kothgassner, O. D., & Felnhofer, A. (2019). Risk factors for problematic smartphone u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Neuropsychiatrie, 33*(4), 179.
- Guerrero, L. R., Dudovitz, R., Chung, P. J., Dosanjh, K. K., & Wong, M. D. (2016). Grit: A potential protective factor against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behaviors among Latino adolescents. *Academic Pediatrics, 16*(3), 275-281.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Kalia, V., Thomas, R., Osowski, K., & Drew, A. (2018). Staying alert? Neural correlat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grit and attention networks. *Frontiers in Psychology, 9*, 1377.
- Kardefelt-Winther, D. (2014).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of internet addiction research: Towards a model of compensatory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1*, 351-354.
- Khoo, S. S., & Yang, H. (2021). Mental disengagement mediates the effect of rumination on smartphone use: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20*, 106757.

- Kim, C., Kwak, K., & Kim, Y.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Current Psychology*, 1-9.
- Kim, Y. H. (2022). Temperament Types at Age 3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t Age 10. *Frontiers in Psychology*, 13, 833948.
- Lauricella, A. R., Wartella, E., & Rideout, V. J. (2015). Young children's screen time: The complex role of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1-17.
- Lepp, A., Li, J., & Barkley, J. E. (2016). College students' cell phone use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4, 401-408.
- Matthews, J., Thomas, M. F., Stevic, A., & Schmuck, D. (2021). Fighting over smartphones? Parents' excessive smartphone use, lack of control over children's use, and conflic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16, 106618.
- Panova, T., & Lleras, A. (2016). Avoidance or boredom: Negative mental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epend on users' motivati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8, 249-258.
- Santos, I., Petroska-Beska, V., Carneiro, P., Eskreis-Winkler, L., Boudet, A. M. M., Berniell, I., Krekel, C., Arias, O., & Duckworth, A. (2022). Can grit be taught? Lessons from a nationwide field experiment with Middle-School Student, *working paper*.
- Schunk, D., Berger, E. M., Hermes, H., Winkel, K., & Fehr, E. (2022). Teaching self-regulation. *Nature Human Behaviour*, 6(12), 1680-1690.
- Takahashi, Y., Yamagata, S., Kijima, N., Shigemasu, K., Ono, Y., & Ando, J. (2007). Continuity and change in behavioral inhibition and activation systems: A longitudinal behavioral genetic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6), 1616-1625.

- 논문접수: 4월 4일 / 수정본 접수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21일
- 교신저자: 고사랑,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sarang.go@knu.ac.kr

## Abstract

### Effects of Maternal Media Overuse on Children's Media Depend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Grit

Seul-Ah Lee and Sarang G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dia overuse and children's media dependence.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13th year (2020)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consisting of 1,393 participants, were used and analyzed by employing the SPSS Process Macro.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s maternal media overuse increased, children's media dependence increased concomitantly.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grit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dia overuse and children's media dependence. In other words, even when maternal media overuse was high, the tendency for children to rely on media varied depending on their level of gri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nsidering the level of grit is effective in interventions targeting children's media dependence.

Keyword: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Maternal Media Overuse, Children's Media Dependence on Media Devices, Grit, Moderator